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1서 4:7-12). 이 사랑을 그리스어로 *agape-아가페* 라고 합니다. 사랑은 행위의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16; 고린도전서 13:1-8).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의 기분을 바탕으로한 자극이 아니며, 혹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좋아하는 마음과 항상 일치된 것도 아니며, 또한 단지 우리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는 것이나 혹은 사랑스럽거나 혹은 아름다움으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대 세대에서는 성경적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무척 뒤틀어 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좋아-I like a lot." 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랑해-I love ice cream," 혹은 "나는 비치에 가는 것을 사랑해-I love to go to beach," 한국어는 별로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안치만 영어로는 완전히 이렇게 사용합니다. 원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함은 이러한 것들을 매우 즐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적 사랑이 기분과 감정에도 관련될수 있지만 꼭 관련이 되어야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계명이며, 이 사랑은 순종과 행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꼭 기분이 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었을 "하라고" 제시 했지만, 우리가 그"기분"이 어떻다 할 수가 없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절제아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기분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4:21과 24절).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성경적 사랑의 견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일을 하고싶지 않으신 것이 성경에 확실히 나타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각오를 달련시키는 것이며, 온정신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1-5 마태복음 5:44).

둘째로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뒤틀어놓은 "사랑"은 사회에서 판단 (분별)력과 정의력이 부족하게끔 혼동시켜 놓았습니다. 현대말로는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 줄거야" (이말의 해석은: "나는 악을 인정하지않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은 기분을 느끼고 무조건 그들의 하는 일을 좋게만 취급할거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성경적이 아닌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고있는 사람에게 큰 지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마태복음 7:1)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더구나 영어 성경으로 공부한 분들은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구절은 위선자들 곧 눈속에 들보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비판" 즉 잘못판단을 의미함). 전체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7:24).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악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악을 처리 함으로써 순결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을 처벌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일이 쉬운일이 아니며 (출애굽기 21:12-17 등등), 또한 그리스도인 모임

에서 악명높은 죄를 자꾸만 짓는자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러한 일들은 항상 쉬운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5:1-5).

사랑은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갈라디아서 5:6)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하는 힘을 주고 계속 봉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집니다(요한복음 13:35). 사랑은 그리스도 형제간의 교제 와 모든 인간성의 특별히 구별된 품성입니다. 이점을 더 공부하시고싶으면 TruthOrTradition.com/love를 방문하십시오.

희락 (기쁨-Joy)

희락 (기쁨-joy)은 가슴속 깊히 자리잡은 빛인데, 속에서 솟아 오르거나 혹은 끌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는 *chara* 라고 합니다. 참 기쁨 은 삶의 품질이지, 단순한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안에서 자세를 잡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또한 그가 장래에 우리에게 어떻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데에서 옵니다. 이 기쁨은 마치 우리가 기대한 것 혹은 매우 좋은 취득물을 얻을수 있으므로 마음이 설레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이며, 하나님의 훌륭한 말씀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가지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 우리가 얻을수 있는 좋은 취득은 천국(회복시킨 에덴동산)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에덴동산에서 산다는 것도 이 기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 생활의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서 뺏아갈 수 없으며,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참 기쁨은 이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할수도 없읍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나타냄으로써 믿지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고 싶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의 견본에 선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5:11). 기쁨은 우리에게 건전한 낙천주 (모든일을 밝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생각할수 있는) 바탕을 주므로; 우리에게 장래가 바람직하고 가능한 것을 볼수있게 도와 줍니다 (히브리서 12:2).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라고 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8:1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계시 하실수 있으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16; 빌립보서 3:1,) 이 기쁨은 우리가 선택할수 있으며,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선택의 결과에 있는데, 특히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1:2). 사도들이 잡혀가서 매를 실컨 맞고는 기뻐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통은 값있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41).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평

"화평"은 조용함, 쉼, 고요한, 혹은 평안함 입니다. 그리스어로 *eirene(에얼엔)*이라고 합니다. 참 화평은 어떤 감정이 아니고 생활의 품질인데, 이것이 우리속에서 주는 조용함, 또한 우리속에서 든지 밖에서 든지 작전이 일어난 때에 분노와 대 소동이 일어날것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화평은 대책을 없애므로 얻을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살롬* 은 옛적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행복을 비는 것인데, 거기에는 안정, 곧 안심감, 안정장치, 화목, 재정적으로 잘됨, 그리고 행복, 이 모든면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말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참 화평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로 인하여 보증된 것
과, 이것이 확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가라앉게 하는 힘을 줍니다.

화평은 그저 무슨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말고 관심을 주지 않음으로 태평한 것

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것은 오히려 이 생명 끝과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앎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13:11).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있습니다 (로마서 5:1). 예수님이 평강의 왕자 (화평의왕자)라고 했습니다 (아세야 9:6). "하나님의 평강(화평)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7). 성경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화평)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165).

오래 참음

"오래참음"은 사람들을 참을성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화를 먼저 내기전에 오래 참을수있게 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참을성으로 일의 목적을 이루며 위반자들과 누구를 해친 상해자들을 용감하게 참는 것인데 순하고 더디게 보복하고 더디게 화를 내고 더디게 처벌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이것을 *makrothumia-메크로떠미아*, 두 단어를 합친말인데 makro-메크로 = long-오래; thumia-떠미아 =passion-강렬한 감정 혹은 anger-화로 번역합니다.

오래참음은 나를 분개시키는 앞에서 급히 복수하거나 혹은 신속히 처벌하지 않게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특성품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써 취할수있는 품행이며 아무리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속에서도 화부터 버럭 내지 안씁니다. 오래참음은 긍휼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door mat-발딱는 걸레(무조건 사람들에게 짓밟이라는 비유)"가 되고 나를 사람이 이용하고 학대하게 내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비슷하게, 참으로 오래참음은 누가 자기 자신을"too spiritual-너무 굉장히 신령하게 여김으로" 혹은 "too holy-너무 굉장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죄짓는 사람들에게 화부터 내는것이 아닌데 한편 죄짓는 사람들을 그저 무조건 너그럽게 봐서 내버려 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참음과 인내, 혹은 견디다, 이 두단어에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를 대조해 보면 "patience-인내, 견디다" (그리스어로, Hupomone-후포모네이), 이 말은 성령의 열매들 기록한 중에서 없는데 이 말은 물체에 대한 참음이지 사람에게 참는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주의 상태로 인하여 양도하거나 고난 당하는 도중에 굴복하지 안는 특성품질인데 이것이 좋아진다는 앞날을 바라보는 소망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3). 그리스어 학자고 문법학사인 Richard Trench릐챧드 추랜치가 기록하시기를: "우리가 현재 구별하는 makrothumia-메크로떠미아[오래참음]와 hupomone-후포모네이[patience-인내]....는 makrothumia-메크로떠미아를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것으로 여기고 hupomone-후포모네이를 물체에대하여 참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분량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분을 돋구는 데도 분을내지 않거나 화를 버럭 내지않으면 그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makrothumei-메크로떠메이 (오래참는 사람)라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2). 만약에 어떤사람이 강렬한 고난을 당할 때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디면 그사람을 보고 hupomone-후포모네이 (인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래참음", 이 단어를 오늘날 사회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이 단어가 매우 훌륭하고 묘사적인 말입니다.

흥미있게도, makrothumia-메크로떠미아 (사람에게 오래참음)는 하나님을 참고로 하고, 한편 hupomone-후포모네이 (물체에대하여 참음)는 하나님을 참고로 하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역시 자유의 마음인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이 참고 견뎌야 하시기 때문에 오래참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체에대하여 참으실 필요가 없으며 물체적인것들은 하나님께서 삼시간에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들은 물체적 시련을 견뎌야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물체적 시련을 받으시지 안습니다. 오래참음(makrothumia-메크로떠미아) 과 참을성 (hupom

one-후포모네이) 이 두 단어가 함께 골로새서 1:11; 고린도후서 6:4-6; 디모데후서 3:10; 그리고 야고보서 5: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극히 중요한 품질입니다 (디모데후서 4:2).

자비 (어떤데는 "온유함" 으로 번역되었음)

자비는 후대스럽고, 마음이 온화하고, 친절한 품질입니다. 그리스어로 Chrestotes-크레스토테이라고 합니다. 자비는 닫고, 순하며, 그리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 자비는 덕성으로 온통 날리고 사람전신에 스며들어서 아무리 무자비하고 사나운것들이 속에 가득한 사람이라도 흠족감으로 녹아버립니다. "자비"는 항상 동정심이 가득하여 좋은일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쓰며, 그 행하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만족과 혹은 안정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자비는 이웃을 유리하게 하는 기질 중심에서 나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것을 보면 도와 주고싶은 자극을 줍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중 하나인데 현재뿐만 아니라 항상 사회에서 많이부족했고 많이부족합니다. 어쩐지 사람들은 살을에어내는 듯 날카로운 말과, 비판과 빈정대는것과, 그리고 서로 쥐어 내리는 것들과 또는 잘못, 실수, 약점에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면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즉 테레비젼 코메디 드라마, 수도없이 많은 농담, 늣이, 책, 이야기들 등 등으로 우리가 "웃어대는" 이유는 거기에 빈정대는 것이 있거나 혹은 쥐어 내리는 말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으며, 그와 반대로 동정과, 안정한 안심을 주며,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중에 하나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잘 가꿔서 길르면 참으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됩니다.

우리의 자비가 참 자비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기분인지 잘 분별할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누가 나쁜 생활로 억망속에 있는사람을 보고 무조건 분쌍하게만 생각해서 그 사람의 "보관"자가 되기 쉬운데 그렇게되면 사실은 그사람을 더욱 약하게 합니다. 번번한 경우에, 사람을 강건해지게 할 진짜 필요한 요소는 죄를 회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자기 생활을 재건설해야만 되는 경우가 만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참 자비인지 어떤 것이 무조건 보관자 행위를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고마움(은혜)을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누가복음 6:35)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인자)가 사람을 인도하여 회계케 하시지만 (로마서 2:4)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버릇을 우리가 노력하여 스스로 고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과식해서 뚱뚱해진 우리의 몸무게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려면, 가볍게 하시기 매우 쉬운일이며, 우리의 낭비가심해서 비어있는 은행책크에 돈 보충해 주시는것도 매우 쉬운일이고, 우리가 밤늦게까지 테레비젼 보느라고 기운없을 때 우리의 원기를 살려 주시는 것 등등, 이 모든것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쉬운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잘못들인 버릇들, 즉 과식과 낭비와 늦잠, 이 외에 모든 나쁜 버릇들을 우리가 고치고자 해서 스스로 노력하여 고칠수있는 결제심을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보관자"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비(인자)하게 하는 것은 모든 믿는자들의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4:31 과 32). 사랑은 자비(온유)하다 (고린도전서 13:4)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멍에는 "자비"하다 (그리스어로 crestotes-크레스토테이 이 말이 여러번역에 나온것처럼 "쉽다"라는 뜻이 아님)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도무지 무자비하고 날카로운데가 없고 혹은 내려치는데가 없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1:30). 우리가 예

수님의 멍에아래 들어올 때 그 멍에가 사나워 목이 부르터서 고통받거나 혹 주님의 멍에가 쪼개져서 거칠은조각에 찔릴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써 열심히 봉사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는 항상 "쉽지" 않지만 항상 "자비"합니다.

양선(good-좋은)

양선은 곧은 마음과 곧은 생활인데, 우수한 양심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agathosune (어개또선)*이라고 합니다. 누가 "양선(good-좋은것)"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참으로 고결하고 존경할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양선(good-좋은것)"은 보통, 사람의 행위에 관련되어 있지 타고난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닌데, 또한 그 양선(good-좋은)한 행위가 쌓아논 양선(good-좋은)한 가슴속에서 솟아납니다: "선한(good-좋은)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good-좋은)에서 선(good-좋은것)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45). 양선(good-좋은것)은 자신-흡수나 혹은 위로-지향 (항상 위로 만 되는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양선(good-좋은것)"을 실천하는 것에는 몹시 괴로운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선(good-좋은것)"은 하나님과 그가 사람에게 주신 계시에다가 잡아맨 닻 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good-좋은것)"은 종종 "악(evil-나쁜한 것)"의 반대로 되어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양선(good-좋은것)이고 무엇이 악(evil-나쁜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임종의 상대주의(인간이 내어놓은 선과 악 - 좋은 것과 나쁜 것)는 선과 악을 각자의 기분과 짐작에게 두고 있습니다. 이 계몽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선한"것들이 "악한"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악한 것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니까), 형벌이 악한 것이 되는 것 (사실은 그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악한 사회의 피해자로 여기니까), 그리고 어떤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 (당신은 마음이 왜 그리 좁소?), 이러한것들은 모두 기분을 상하게하기 때문에 악하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악한(나쁜)"것들이 "선한(좋은)"것들로 되는 데, 가게에서 물건살 때 거스름돈을 과외로 많이 받았어도 아무말 없이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으면 내것이 되는것; 결혼전에 동거생활하는것; 혹은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것, 이와같은 것들이 모두 선(좋게)하게 보입니다.

"양선(goodness-좋음)"은 "이빨달린 열매"라고도 할수 있는것은, 양선(goodness-좋은것), 은 "자비"(kindness-친절)와 공통된점이 많지만, 선한 것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의 중심이 분명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법을 세우고, 범죄인들을 형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생활에 혹은 사회에 "양선(goodness-좋음것)"이 없으면 악(evil-나쁜것)이 형벌받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만양 상성합니다. 로마서 15:14 (NASB번역ㄱ) 성경에, "And concerning you, my brethren, I myself also am convinced that you yourselves are full of goodness, filled with all knowledge, and able also to admonish(충고, 훈계) one another."ㅎ -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충고,훈계)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 그로스도인 들이 선한 지식이 가득차서 서로 경고하고 훈계하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책망과 교정, 곧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밝혀 줍니다. 이 모든것들을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각 각 따로 적용할수 있지만, 한꺼번에 다 적용할 수가 없습은, 양선(좋은)과 자비(친절)를 비교해보면 굶주리는 자를 먹여주는 경우에는 자비(친절)와 양선(좋은) 이 두가지가 다 선한일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연속 하는 자는 사형 시키는 것이 양선(좋은) (이고 합당한 것)한 일을 하는 것이지, 살인자에게는 "자비"를 베풀면 안되는 일입니다ㅎ 이와 비슷하게, 하나

님께서 악한자들을 Gehenna - 불못 에 던져서 없애는 것이 (요한계시록 20:15)양선(좋은)한 일이지만, 그 악한자들에게는 "자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 세상이 될려면, 우리가 "양선(Good-좋은것)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무조건 "자비"만 베풀면서 "양선(good-좋은)한 일을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충성 (Faithfulness)

충성(Faithfulness)은 그리스어로 *pistis(피스티스)*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faith-믿음" 혹은 "faithfulness-충성" 이 두가지로 다 말할수 있지만, "충성-faithfulness" 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용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그가 약속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faithfulness - 충성"은 계속믿는 것과 혹은 인내, 끈기를 의미합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견실히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은 *신뢰할수있는* 분이며, 이보다 더,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계속함으로, 그를 향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이 세상것들 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충실한 친구, 충실한 이웃, 충실한 부모, 충실한 자녀, 그리고 기도에 충실, 봉사, 그리고 여러가지 그리스도인 덕에 충실한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동안은 충실합니다, 어찌 되었던지 모든 충실은 다 좋지만, 새 성품, 성령의 열매의 faithfulness-충성, 은 믿음의 충만을 날마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2).

온유-Meekness (영어로는 온유-Meekness를
"온순-gentleness"라고 가끔번역함)

"온유-meekness" (그리스어로 praotes-프라오테스)는 겸손의 자격인데 그의 자자신에 험과 모자란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책망과 바로계함을 들으며 이와 같이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때도 그의 권력을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혹은 그들을 압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 맨 끝 부분 설명 때문에 여러 번역가들이 "온순-gentlenes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온유에대한 첫 대목 설명도 마지막 대목 설명과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 이 뜻을 적합하게 알고 있는 한, "온유-meekness"로 번역한 것이 "온순-gentleness"보다 훨씬 나은 번역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는 코치해 주는것과, 교육시켜주는 것을 잘 받아 드릴 수 있는 능력이고, 또 비록 누가 책망하는 것 조차도 저항 하지않고 화내지 않으며 혹은 보복할 틈을 찾거나 앙갚음 하고싶은 마음에 유혹되지 않고 받아드릴 수 있으며, 또 이 능력으로 사람을 인도할 때 온순한 태도를 취할수 있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온유는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에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선을 우리와 같이 처리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심령의 기질인데, 다투거나 저항함이 없이 받아드릴 수 있게 합니다. 경건한 온유는 능력의 마음 자세이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흔히 짐작하는 온유는 "mousy-쥐같은, 소심" 혹은 "겁장이" 에 비슷한 뜻으로 하고, 마음이 약한 데서 오는 것 같이 취급 하는데, 경건한 온유는 이 모든 것과 정 반대 입니다. 우리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9).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줄 아시므로, 프라이드-자존심, 교만, 혹은 사람을 억제로 조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를 코치할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를 받아드렸고 적합한 일이면 사람들의 충고도 받아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말을 하여도 그 말을 들을수 있는 아량이 넉넉합니다. 모세가 그의 세대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의 행위를 감찰해 보면 강력한 표적과 기이한 일들이 가득 함이다 (민수기 12:3). 온유는 하나에 도리의 태도인 것이지, 떠밀거나,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그리고 교만한, 이와같은 태도들과는 정 반대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인도하는 자로써 없애 버려야 하겠습니다(고린도전서 4:21; 고린도후서 10:1절 2절).

절제

"절제"는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egkrateia-*애크레티아 라고 하는데, 뿌리 말은 *kratos-*크라토스 라고 하며, 그 뜻은 힘있는 행휘; 힘들인 것을 의미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egkrateia-*애크레티아 는, 누가 자신을 다스림의 미덕과 그의 소욕과 열정을 지배함에 사용하는데, 특히 음란하고싶은 마음을 다스리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종노릇 하게끔 만드시지 안했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었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제의 관련된 온전한 뜻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기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과 행위와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온통 문란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준이 없으므로 그들이 무엇에 절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문화가 점점 더 분경건 해여지면 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않는 자들과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과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3).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욕망의 만족들과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받은 음란들도 피하여야 됩니다. 어떤경우에는 매우 힘이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여야 됩니다(고린도전서 9:24-27).

경건한 절제는 죄의 성품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우리에게서 죄의 욕망이 없게할 수 있는 것 처럼, 육의 마음을 재건설 하려고 금욕주의 훈련이 아닙니다. 절제는 상태 상태 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절제는 그저 종교 작업을 많이 함으로써 죄스런 버릇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한 연습은 그의 마음과 소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돋구어 줍니다. 참 절제는 자유로운 뜻 안에서 결합하여 결정된 마음에서 낳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앞에 올바르므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새 성품이 힘써 그의 성품을 우리 밖으로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절제"는 하나에 "성령의 열매" 이지, "자신에 뜻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심이 많아서 많은 일을 성취할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지않은 절제심은 그들로 자랑하고싶은 열망을 주는데, 이것을 사랑과 모든 성령의 열매에 결합시켜서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럼으로, 절제를 성령의 열매들 중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참 잘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열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